

지난 주에 요셉을 통해서 언약의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세계복음화를 생각했다. 그 세계복음화를 모든 것의 이유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에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나”는 말을 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응답과 절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수 밖에 없는 절대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것을 세계복음화로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먼저 구원받은 나를 사용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왜 병들고 연약한 우리를 치유하셔야 하는가? 치유 받은 나를 통해 세상을 치유하셔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왜 나와 내 후대와 산업을 축복하셔야 하는가? 이 축복의 증거를 가진 나를 사용해서 세상을 축복하시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때 거기서 빠져 나오는 길이 무엇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것도 세계복음화로 풀어야 한다. 우리는 늘 문제 해결에 몰두하며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한다. 또 문제만 해결 되면 끝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본문의 모세의 삶에서 그것을 보는 것이다. 나는 실패한 줄 알았는데, 실패한 나를 통해 나 같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왜 나는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할까? 무능력은 원래 능력이 없는 상태이다. 무기력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 내가 뭘 할 수 있는 에너지도 없고, 당연히 뭘 하고자 하는 의지나 열정이 안 생기는 것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우울증을 겪거나 영적 문제를 겪으면 이렇게 된다. 그렇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이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모세를 비롯해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이렇게 한 시대를 살리는 자들로 쓰임 받은 것이다.

이 절대 이유가 깨달아지면 모든 불가능 절망의 길(No Way)이 모든 길(Every Way)이 되고, 모든 자(Every Body)를 살리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

이 시대의 문제는 왜 왔을까? 인간의 타락한 욕심도 맞고(딤후3장), 타락한 사단의 역사도 맞다(계2, 12, 13, 18, 20장).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모든 민족을 살릴 세계복음화의 기회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다(마24:14). 지금의 이 어려운 시간도 세상 살릴 세계복음화의 이유를 붙잡은 교회와 개인에게는 엄청난 전도와 선교의 기회다.

1. 세계복음화를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무엇인가?

한 때 애굽의 왕자로 자란 모세가 도망자가 되어 40년을 광야에서 살았고, 지금의 나이가 80세이다(시90:10).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세가지를 깨닫게 한 것이다.

1)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6절)

나를 살려 모든 민족 살리고, 나를 축복해 모든 나라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결론이다.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모세에게 찾아 왔다는 것이다. “너와 네 후손으로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네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행1:8)고 말씀하신 것이다. 언약의 결론 중에 결론, 정체성 중에 정체성, 이유 중에 이유, 세계복음화이다. 이것 붙잡고, 이것을 전달하고 계승시키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이다.

2)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 오셨다고 했다(8절). 그것이 복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400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운명 같은 저주다.

① 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것이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실패의 배후 속에 원죄의 저주(죄의 본성), 영적인 저주(사단의 역사), 영원한 저주(지옥 저주)를 내가 해결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직접 오셨는데, 그 분이 그리스도이시다(골1:15-17, 롬1:4, 롬1:16-17).

② 그리스도의 세가지 권세로 모든 문제를 끝낸 것이다(요19:30).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오셔서 직접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를 해결한 것이다(롬8:1-2).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고(창3:15),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이다(요일3:8).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로 오셔서 길이 되시고(요14:6), 영원히 함께 하신 것이다(요14:16-18). 모세가 애굽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양을 죽여 피 바를 때, 모든 저주가 끝난 것이 이것을 의미한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오직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3) 이 복음을 깨달은 모세를 쓰시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다(12절)

이것이 방법 중에 방법이다. 축복 중에 축복이다. 이제는 아무 배경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늙은 모세가 가진 것은 지팡이 하나 뿐인데, 그 모세에게 함께 하니 그 지팡이가 권능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다. 복음 없이 잡은 것은 결국 무의미하고 나를 무너지게 한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작은 것도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하나님 없는 그의 손은 무능한 손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의 손은 사람을 살리는 손이다(출4:1-4) 내가 아무 것도 없다. 나는 무능하다. 아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고후6:9-10)

2. 하나님의 절대 해답이요 절대 방법인 복음 속에 있는 것이 맞다면 절대 도전을 시작하라.

1) 쉼넷들은 내가 아직 어리고 젊은 시간부터 나를 부르신 것을 감사하고 근본, 기본, 기초를 만들라.

하나님은 모세를 언약 가문에서 선택하셨다(출2:1). 언약 가진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알라 강가에도 버려지고, 불신자 현장인 애굽 왕궁에서도 살게 하시고, 가장 외로운 광야의 시간도 거치게 하면서 모세를 준비시킨 것이다. 그 모든 시간을 거치며 세가지를 준비하게 하신 것이다.

①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영성이다(영적 씨앗의 준비).

어려서는 부모를 통해, 광야에서는 하나님과 1:1로 선 것이다. 늘 예배를 먼저 생각하고, 개인 기도를 누려라

② 기본은 사람과의 관계이다(문화 씨앗의 준비). 주로 가정에서 훈련한 것이다. 누군가를 향한 배려와 소통, 에티켓, 마음의 신실함, 책임감, 그러면서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리더십을 훈련시킨 것이다.

③ 기초는 달란트, 학업, 일에서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다(기능 씨앗의 준비).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유일성이 되도록 도전하라.

2) 나이가 들었고,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가? 아니다.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누리기 시작하면 내 지나온 모든 것이 메시지가 되고, 발판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다 른 꿈을 꾸게 될 것이다(골2:28)

3)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이 가졌던 삶의 자세 10가지를 묵상해보면서 응답받아 보라.

(홀로 있는 시간에 누릴 오직의 체험, 절대적 사실 앞에 서라, 생각의 틀을 깨는 역발상으로, 함께 하는 시너지 축복, 위기 선택해서 기회로, 경쟁 대신 양보하고 승리, 씨앗의 도전, 광야의 체험,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질문)

결론-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나의 절대 이유가 되기를 바란다. 그 속에 세계복음화가 모든 것의 이유가 되기를 바란다. 세상 가서 다른 이유 때문에 갈등하는 인생을 살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가진 자들이다.

